

예수님 시대의 종파들

신약 시대의 유다 사회에는 여러 종파가 존재하고 있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 종파들을 흔히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라고 구별해 불렀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와 필로에 의해 언급된 제3의 종파로서 '에세네'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독립 투사들의 단체인 열혈당이 있었다.

이들의 기원은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152년 유다 마카베오의 후계자인 요나탄이 왕권과 대사제직을 겸임하자 '경건한 사람들', 즉 하시드인들이 반기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평민들이 주축이 되어 바리사이를 조직했고, 일부 사제들이 주축이 되어 에세네를 조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제들과 예루살렘 유지들은 요나탄을 계승한 하스모니아 왕조에 동조하여 사두가이를 조직했다.

바리사이라는 명칭은 히브리 말 '분리된 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그들이 토라를 철저히 연구하고 맹신하며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엄격하게 피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사의 정결법, 금기식품법, 안식일법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질곡의 역사안에서도 위기를 넘기고 정통성을 보존해 온 유다이즘의 형태를 더욱 확고히 한 것은 바로 바리사이 전통이었다. 또한 그들은 국수주의자들로서 로마인들을 침략자요 선민중의 압제자들로 간주했다. 그리고 일부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들을 멸시하고 피하는 오만함을 보여 예수께 혹독한 책망을 받았다. 그들은 민중들에게는 존경과 예우를 받았으나, 예수님으로부터는 율법의 형식과 논리만을 좇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로 인해 단죄를 받았다.

사두가이는 히브리 말 '의로운'에서 따온 대사제의 이름 차독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이와는 다른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사두가이는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토라의 규정들은 준수했지만 율법 학자들이 만든 여러 실천 규범들은 배척했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과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리사이와 대립되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레 스며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생존 당시에는 로마인들과 거리낌 없이 타협하면서 로마의 생활 양식을 따랐다.

하지만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는 이처럼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적대 행우에는 뜻을 같이 했다. 사두가이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 권력에 해가 미칠까 두려워했으며, 바리사이는 예수님과 다른 메시아, 즉 백성을 해방시키고 풍요의 시대를 가져다줄 인물을 기대했다.

에세네라는 명칭은 아람말 '경건한 사람들'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원래 사제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성전 직무를 거부한 특수 공동체였다. 에제키엘과 역대기 저자가 부각시킨 차독의 사제직을 정신적으로 대변하고자 한 에세네는 바리사이와 비슷한 노선을 취했으나 율법 중심의 근본주의, 선민주의적 배타의식, 묵시 문학적 종말론에 입각해 훨씬 더 엄격하게 짜여진 콤란 공동체 안에서 일반 사회와 분리된 채 살았다. 후에 발견된 에세네의 콤란 문서는 신약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